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
|   <b>제주특별자치도</b><br>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3. 1. 5.(목)<br><b>배포 즉시</b> 보도 가능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<b>농업기술원</b>  | <b>보도자료</b><br>PRESS RELEASE | 원예경영연구과장  | 김태균 ☎ 760-7310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업무담당자   | 고순보 ☎ 760-7312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홍보담당자   | 고희열 ☎ 760-7512 |
| 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진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|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속자료 : 없음   |                |

## 신품종 브로콜리, 상품수량 많고 병에 강해

- 5일 광지리, ‘브로콜리 신품종 한라그린·삼다그린 농가실증 평가회’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허종민)은 제주지역 겨울철 주요 소득작목인 브로콜리의 종자주권 회복을 위해 우리품종 육성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- 제주는 브로콜리 주산지이나 대부분(99%) 외국품종으로 종자가격 상승은 농가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, 향후 품종 선택권 상실, 가격 조절 곤란, 경영비 가중 등 문제는 불가피하다.
  - 재배면적 1,171ha(전국의 72%), 생산량 1만 8천 360톤(전국 73%)
- 이에 농업기술원은 2006년부터 품종개발을 착수해 2017년 ‘뉴탐라그린’을 육성하고 지난 2022년 ‘한라그린’, ‘삼다그린’ 2품종을 품종보호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다.
-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‘한라그린’, ‘삼다그린’ 2품종의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고 현안 문제를 발굴·해결하고자
- 지난해 8월 브로콜리 주산단지 중심 2ha, 10개소에 농가실증을 추진하였고 생육특성, 병해충 발생 정도, 수량 특성 등을 검토하였다.
- 지난 5일 애월읍 광지리(1795-1)에서 농업인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존품종(SK3-085, 일본)과 ‘한라그린’, ‘삼다그린’에 대한 현장평가 결과

- 3품종 모두 수확기는 비슷하며 구중은 ‘한라그린’, ‘삼다그린’이 무거운 경향을 보였다.
  - 구중(가식부위 무게): SK3-085 417g, 한라그린 456g, 삼다그린 440g
- ‘삼다그린’ 품종은 상품율, 상품수량 모두 다소 높으며, ‘한라그린’은 상품율은 비슷하지만 구중이 무거워 상품수량이 많았다.
  - 상품율: SK3-018 82.4%, 한라그린 81.6%, 삼다그린 87.3%
  - 상품수량: SK3-018 1,881kg/10a, 한라그린 2,050kg, 삼다그린 2,136kg
- 브로콜리 주요 병해충인 검은무늬병, 노균병에 대한 발생조사 결과 ‘삼다그린’ 품종은 병에 저항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한편, 지난해 도매시장(가락동) 유통인 테스트 결과에서는 모양이 좋고 단단하여 선호도가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.
- 농업기술원은 3월 종묘회사와 통상실시로 2024년부터 품질 좋은 우리품종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급하여 재배를 늘려나갈 계획이다.
- 이와 함께 2023년에는 (사)제주브로콜리연합회와 공동으로 신품종 재배단지 10ha를 구축 할 계획이다.
- 신품종 브로콜리를 육성한 고순보 농업연구사는 “농산물 경쟁력은 품종 확보에서 시작한다”며 “제주지역에 적합한 우리 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종자비를 절감은 물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구현하겠다”라고 강조했다.